

Analyst 이정준

02) 3787-2627

Jungjoon.lee@hmcib.com

## 10월 FOMC 결과

## 추가적인 경기 증거가 필요하다

## 기존 양적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 유지

- 미연준은 매달 850억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통한 기존 양적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
- 실업률이 6.5% 이하로 낮아지지 않고, 인플레이션이 2.5%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한 현행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 (연0~0.25%)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

## 자산매입속도 조절을 위한 기다림

- 미연준은 미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었으나 자산매입 속도를 늦추기에는 이르다고 판단
  -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추이, 그리고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예정
- 미연준은 물가 안정하에 고용시장 개선시점까지 채권 매입을 지속할 것이며, 필요시 다른 정책 도구도 사용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
- 그러나, 미연준의 경기시각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
  - 미연준은 향후 경제성장률이 최근 속도보다 반등할 것이며 실업률의 점진적인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

구분 '13.9월 전망 '13.6월 전망	2013년	2014년	2015년
GDP	20~23 23~26	29~31 30~35	30~35 29~36
실업률	7.1~7.3 7.2~7.3	6.4~6.8 6.5~6.8	5.9~6.2 5.8~6.2
PCE	1.1~1.2 0.8~1.2	1.3~1.8 1.4~2.0	1.6~2.0 1.6~2.0
Core PCE	1.2~1.3 1.2~1.3	1.5~1.7 1.5~1.8	1.7~2.0 1.7~2.0

## Tapering 지연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 하락률은 제한

- 미연준의 양적완화 유지에도 불구하고, 시장 예상보다 긍정적인 미연준의 경기시각이 확인됨에 따라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Tapering 경계심리가 부상
  - 시장은 내년초 예산안 편성과 부채한도 증액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Tapering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, 10월 FOMC성명서에서 미연준이 이전보다 낙관적인 경기시각을 밝혀 Tapering 시행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음
- 일단, 채권시장은 그 동안 과도하게 반영되었던 Tapering 지연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할 것이며, 이 과정에서 채권금리 되돌림은 불가피할 전망
- 다만 Tapering에 대한 판단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채권금리 변동성은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 방향성 탐색 국면에 진입할 전망